북한 대중들의 전략적 글쓰기와 당국의 대응: 자서전·이력서를 중심으로

Strategic Writing by North Korean Masses and Responses of Authorities -Focusing on Autobiographies and Resumes

김재웅 Jaewoong Kim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공직자·간부·노동당원 개개인들에게 자서전·이력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들의 경력과 신상 정보를 수록한 이 문건들은 국가가 개개인들을 장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서전·이력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술되어야 했다. 수십 항목에 걸쳐 단답식 서술을 요구한 이력서는 기록자의 삶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답식 서술만으로는 기록자의 구체적 활동과 인간관계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랐다. 이력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서전은 기록자의 의식구조, 활동 경력, 가족 배경 등을 미시적 수준까지 해부할 수 있는 자료였다.

북한의 모든 공직자·간부·노동당원·학생·군인 등에게 부과된 자서전 작성은 전인민적 차원의 '기억 되살리기'이자, 국가에 대한 '진솔한 삶의 고백'을 의미했다. 그것은 작성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들러붙어야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었다. 출생 전 집안의 역사, 출생 후의 가정환경과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과 8촌 이내 친척들의 경력에 관한 서술은 기록자 본인의 기억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계급적 소속과 가정환경과 과거 경력이 중시된 사회에서, 대중들은 그러한 정보들이 압축돼 있는 자서전·이력서가 자신들의 사회적 성취를 좌우할 수 있는 문건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록자들은 전략적 글쓰기를 통해 그들의 은밀한 의도와 욕구를 관철하고자 했다. 가능한 좋은 직책에 등용되고 되도록 당국의 눈 밖에 나길 원치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유리한 경력을 과시한 반면,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은폐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기록자들의 글쓰기 전략은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유형의 기록자들 중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글쓰기 전략을 시도한 부류는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지닌 이들이었다. 자신의 배경과 전력을 감추고자 했던 그들은 대략 세 가지 형태의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변명성 글쓰기, 허위 기재, 의도적 누락이 그것이었다. 기만행위의 발각을 우려한 이들이나 당과 국가 앞에 보다 떳떳하고자 했던 이들은 부정한 전력과 불리한 배경에 대해 변명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더 과감하게 허위 기재나 고의 누락 전략을 구사한 이들은 출신성분이나 부정한 전력을 속여, 사회적 지위 상승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옥죌 수 있는 각종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당국은 자서전 작성자들의 기만 전략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당국자들이 개개인을 평가한 문건인 평정서는 이력서·자서전의 기록 내용, 기록자의 평소 품행, 그의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자서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씌어진 평정서의 목표는 자서전에 기록된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데 있었다. 사실 전략적 글쓰기를 통한 기록자들의 기만행위가 성공하기 힘들었던 까닭은 그들에 대한 치밀한 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평정서를 통해 개개인들을 해부한 의도는 그들을 철저히 장악하고자 함에 있었다.

Abstrac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s made the submission of autobiographies and resumes mandatory to public officials, executives, and individual workers. Such documents, containing their personal and career information, were used as a means for the state to control and manage individuals and had to be written in a certain format. The resume, which required short-answer descriptions on hundreds of items, was a document to help grasp the life of recorder at a glance, but this short-answer description alone was insufficient in grasping the specific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of the recorder. The autobiography, which can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resume, could help dissect the recorder's consciousness structure, activity history, and family background to a microscopic level. The writing of the autobiography imposed on all public officials, executives, workers, students, and soldiers in North Korea meant the "reviving of all people's memories" and "a genuine life confession" to the state. It was that could be completed not only by the writer himself but also by the whole family. This is because the description of family history before birth, the family environment after birth and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careers of family and third cousins could not be easily written only by the recorder's own memory.

In a society where individuals' class affiliation, family background, and past careers were important, the public saw that the autobiography and resume containing such information could determine their social achievement. Thus, most recorders tried to satisfy their hidden intentions and desires through strategic writing. Hoping to be appointed into the best possible positions and not wanting to lose trust of authorities, they showed off their favorable careers while concealing their unfavorable background and wrongful history.

The writing strategies of writers who had different interests intertwined were inevitably manifest-

ed in various forms. Among the various types of recorders, those who attempted a higher-level writing strategy than anyone had a disadvantageous background and unjust history. Trying to conceal it, they applied three types of response strategies: writing excuses, false statements, and intentional omissions. Those concerned with being discovered of such deceitful acts or wanted to be more confident in front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ok a strategy to make an excuse about their unjust history and unfavorable background. Those who wrote false information more boldly or intentionally omitted the information tried to remove the obstacles to enhancing their social status by lying about their origins and wrongful history, in order to escape from discrimination that could imprison them.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id not stay completely deceived by such autobiography writers. The assessment report, which was a document used by state officials to evaluate individuals, was draft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sume and autobiography, the recorder's usual conduct, and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his acquaintances. Written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to the autobiography, the goal of the report was to correct the false information in the autobiography. In fact, the deceitful act of recorders through strategic writing was difficult to succeed because the authorities conducted a meticulous rating of them. Of course, the state thoroughly dissected individuals through the assessment report in order to entirely take over them.

머리말

미군이 한국전쟁기에 북한지역에서 탈취한 이른바 노획문서들 가운데 적잖은 분량의 자서전·이력서류가 있다. 북한 당국이 제 기관에 소속된 직원 개개인들로부터 수합한 이 문건들은 그들의 경력과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가가 개개인들을 장악·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자서전·이력서류는 당시 일반 대중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신문과 잡지류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은 당국의 검열을 거친 여과된 문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제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간부 개개인들이 작성한 자서전은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들은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개인 기록물인 자서전으로부터 당대인들의 심층적인 의식 구조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에 제출된 문건이라는 자료의 성격 상, 자서전·이력서류는 기록자들의 자기검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국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의식한 기록자들은 가능한 한 부정한 전력을 은폐하려 한 반면, 유리한 경력을 부각하는 식의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사실 자서전·이력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함과 아울러 불이익을 피하고자 했던 일반 대중들의 전략적 글쓰기가 적극적으로 시도된 공간이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일반 대중들의 전략적 글쓰기를 방관하지 않았다. 당국자들은 개개인들을 철저히 해부해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해내는 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자서전·이력서란 무엇인가?

현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공직자 개개인들로부터 자서전과 이력서를 수합하였다. 그들의 가족·친척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와 활동 경력을 기록한 이 문건들은 국가가 개개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 자서전·이력서는 모든 개개인들을 장악하고자 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일반적 통제 기제였다. 물론 북한도 공직자·간부·노동당원·교원·학생·군인 등에게 이력서와 자서전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군이 전시에 북한지역 공공기관들에서 탈취한 이 문건들은 그 기관들에 근무한 직원들 개개인의 기록물이다. 자서전·이력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먼저 작성자의 사진을 오른쪽 상단에 붙여야 하는 이력서는 수십 개의 기재 란을 두고 있었다. 평양공업대학 교수 이력서 양식의 경우 기입해야 할 항목이 총 42개에 달했다. “소속 직장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 부모의 직업, 토지개혁 시 몰수되거나 분여받은 토지 규모, 부모의 재산 정도, 출신성분, 사회성분, 소속 정당 등이 그것이었다.

단답식 서술을 요구한 이력서는 개개인들의 일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단답식 서술만으로는 작성자의 구체적 활동과 경력,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내밀한 의식 구조 등에 관한 심층적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랐다. 달리 말해 개개인들의 거시적 활동 궤적과 대강의 경력만을 보여주는 문건인 이력서 이상의 자료가 요구되었다. 바로 자서전이 그들의 활동 경력과 가족 배경을 미시적 수준까지 해부할 수 있는 자료였다. 자서전 양식은 백지에 밑줄만 그어져 있었다. 기록자들은 작문을 통해 그 빈 공간을 메워야 했다. 물론 자서전에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작성 요강이 있었다. 자서전 작성 요강은 다음과 같다.

"1)본적과 현주소를 쓸 것 2)출생 당시부터 해방 전까지 가정의 경제 상태(소유한 동산·부동산 액수와 토지개혁 당시 분여받거나 몰수된 토지 평수 등) 및 부모의 직업 변동과 사상 동향(8촌 친척까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쓸 것 3)해방 후 부모의 직업과 사상 동향 및 정당 관계(8촌 친척까지)를 구체적으로 쓸 것 4)본인의 8세 이래 경력(취학, 해방 전 직업, 일제의 관청·군대와 친일단체 참가 등)을 구체적으로 쓸 것 5)해방 전 혁명운동 참가 여부와 참가 단체명을 쓸 것 6)해방 전 사회관계, 교제한 친우의 성명과 교제 시기를 상세히 쓸 것 7)투옥생활을 했는가? 했다면 그 원인과 기간 그리고 출옥 사유와 출옥 이후의 직업 및 사상 동향을 상세히 쓸 것 8)해방 후 직업, 소속 정당과 그 정당에 참가한 동기, 입당 보증인, 입당한 기관 그리고 책벌 받은 일을 상세히 쓸 것 9)이상 8세 이래 년대와 지역 명을 명확히 쓰고, 과거 이력에 대한 보증인의 성명, 직위, 주소, 정당 관계, 종파 관계를 쓸 것."[1)]

기록자들은 이 지침에 따라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세밀하게 기술해야 했다. 자서전·이력서 작성 요강은 특히 기록자의 가족관계와 일제시기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요구했다. 출신성분(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 사회성분(본인이 가장 오래 몸 담아온 직업), 토지개혁 시에 분여받거나 몰수된 토지 평수, 가족과 친척 구성원들의 경력 등은 작성자가 어떠한 가족관계·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해왔는가를 살핌으로써 그의 포섭과 배제를 타진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저항하거나 협력한 작성자들의 해방 전 경력도 그들의 포섭과 배제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었다.

당국을 기만하기 —자서전 쓰기의 전략—

개개인의 계급적 소속, 가정환경, 과거 전력이 중시된 사회에 살고 있었던 대중들은 그러한 정보들이 압축돼 있는 자서전·이력서가 자신들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건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리한 출신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지닌 이들은 가능한 그것들을 은폐하는 식의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사실 자서전을 통해 전략적 글쓰기를 시도한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까 우려한 이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작성자들이 전략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은밀한 의도와 욕구를 관철하고자 했다.

가능한 좋은 직책에 등용되길 바라고 되도록 당국의 눈 밖에 나길 원치 않았던 그들의 대표적 글쓰기 전략은 빈곤했던 삶을 부각하고 부유했던 삶을 은폐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의 친일행위를 철저히 숨기는 반면, 일제에 저항한 경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식의 서술도 동일한 효과를 노린 대응이었다. 그들은 유리한 배경과 경력을 가능한 드러내고 불리한 배경과 전력을 되도록 은폐해야 했다.

자서전 작성자들은 전략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바를 관철하려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의 글쓰기 전략도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글쓰기 전략을 시도한 이들은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지닌 이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국에 자신의 배경과 전력을 숨겨야 했다.

기만행위의 발각을 우려한 이들이나 당과 국가 앞에 떳떳하고자 했던 이들은 당국을 속이기보다, 부정한 전력과 불리한 배경에 대해 변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자서전 작성자들의 변명성 글쓰기 전략은 일제에 협력한 이들의 기록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철원고급중학교 교사 박연순(25세)은 해방 전 일제의 교육기관에 복무한 전력을 "죄악"이라며 자책했다. 그는 교직에 임용된 뒤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자각"했으나, 사범학교 재학 당시 관비를 받은 탓에 의무적으로 근무 연한을 지켜야 했고 따라서 교사직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2)]

출신성분이 불량한 이들, 친일 전력을 지닌 이들 외에 여러 이유로 북한체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변명성 글쓰기 전략을 시도하였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들, 기독교인들, 노동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민주당원·청우당원이 그 대표적 부류에 속했다. 함경남도 갑산중학교 교사 정태설(25세)은 일제시기 6년간 경찰직에 종사하다 해방 직후 월남한 삼촌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유학과 징병 탓에 오랫동안 외지 생활을 한 그는 고향에 있는 삼촌과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는 변명을 자서전에 늘어놓았다. 그는 삼촌과 접촉하지 않아 그에게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당국이 믿어주길 바랬다.[3)]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지닌 이들의 대응은 변명성 글쓰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더 과감히 당국을 기만하여, 불이익을 면하려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불량한 출신성분을 속이는 행위는 이력서 작성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었다. 그들은 출신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사회적 지위 상승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옥죌 수 있는 각종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강원도 평강여자중학교 교사 최성배(24세)도 자신의 출신성분을 속이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그는 토지개혁 당시 경작지 5정보를 몰수당한 데다 상업에 종사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이력서의 출신성분 란에 "사무원"이라고 기입했다. 허위 기재 후 그는 적잖은 고민에 빠진 듯하다.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당국의 검열을 의식했는지, "사무원"에 두 줄을 긋고 "소시민"으로 정정하였다.[4)]

허위 기재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은 누구보다 계급적 지위가 불안했던 지주와 부농 출신들이었다. 평양교원대학 화학과 학생 길성혁은 자강도 강계중학교 졸업 당시 실시된 국가 졸업시험에서 5점 만점을 받아, 한설야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장상을 받은 전도유망한 학생이었다. 출중한 실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무시험 전형에다 장학금까지 받아 평양교원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래가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지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허위 기재 전략을 통해 자신의 집안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자 했다.

먼저 이력서에 출신성분을 빈농으로 적은 다음, 토지개혁 시에 2,000평의 토지를 분여받았다고 기입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는 거짓말을 당국이 믿게끔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픈 유혹에 빠졌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다. 그는 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등사했으며, 토지를 분여받은 가난한 부친이 매우 기뻐했다는 거짓 경험까지 지어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그의 자서전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강도 자성군에서 강계군으로 축출돼 현재 상점을 열고 있는 과거 지주의 아들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절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겨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5)]

사실 허위 기재 전략은 발각될 경우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기록자들은 부정한 전력과 불리한 배경을 왜곡해 기술하기보다, 그것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식의 대응을 보였다. 허위 기재 전략을 시도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의 누락 전략을 시도한 이들 중에는 지주와 부농·중농 출신이 많았다. 그들은 토지개혁기에 몰수당한 경작지 면적을 기입하지 않는 식으로 착취에 관여한 전력을 숨기려 했다. 특히 지주와 같은 대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토지를 소작준 탓에 몰수의 대상이 된 부농·중농 출신들이 그러한 대응을 보였다. 출신성분이 중농인 평양교원대학 지리과 학생 장원겸도 이력서의 “몰수 평수” 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그가 토지개혁 당시 5,000평의 경작지를 몰수당한 가정에서 성장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6)]

한편 부정한 전력과 불리한 배경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는 허위 기재 못지않은 국가 기만행위로 간주되었다. 철원농업학교 교무주임 김영식(32세)을 평정한 시학은 그가 “과거 전력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특히 시학은 그가 1946년경 월북하기 전 수 년간 서울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별로 없으며 그나마 떠오르는 몇몇 지인들의 이름마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격분했다.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김영식은 사상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학은 그가 역사과 교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7)]

대중들의 속임수를 간파하기 —평정서를 통한 개개인 해부 전략—

이력서와 자서전은 각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문건이다. 이 두 문건과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한 평정서는 기관 당국이 그들 개개인을 평가한 기록이었다. 평정서는 이력서·자서전의 기록 내용, 기록자의 평소 품행, 그의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종종 이력서·자서전의 허위 기재와 의도적 누락을 지적하고 있는 이 문건은 기록자가 고백한 경력의 진위를 교차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연구자들은 자기검열을 거친 변론적 기록인 이력서·자서전뿐만 아니라, 평정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개개인들의 개성·인성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서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씌어진 평정서의 목표는 자서전에 기록된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데 있었다. 물론 고의 누락 전략을 구사한 이들의 은밀한 과거를 캐내는 일도 평정서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강원도 평강축산전문학교 교원 송춘모(28세)는 아버지가 대서업에 종사했다고 자서전에 기록하였다.[8] 그러나 당국은 잠깐 대서업에 몸담았을 뿐, 일제시기 경찰직에 복무하다 해방 직후 월남한 그의 은밀한 과거사를 밝혀내고야 말았다. 송춘모를 평정한 당국자는 직계 가족이 친일 전력을 지닌 데다 월남한 점, 심지어 그러한 행적을 이력서와 자서전에 기입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평정자는 그가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의도 잊지 않았다.[9]

전략적 글쓰기를 통한 자서전 작성자들의 기만행위는 대체로 간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당국자들은 어떻게 기록자들의 속임수를 꿰뚫어볼 수 있었을까? 물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기록자의 지인들을 통해 자서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평양교원대학 화학과 학생 길성혁의 자서전·이력서를 검토한 학과장 교수는 "빈농"이라 적혀 있는 그의 출신성분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길성혁의 동향 친구 유강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졌다. 유강은 그가 빈농의 아들이 아닌 축출된 지주의 아들이라고 이실직고했다.[10]

한편 황해도 해주여자고급중학교 교사들을 평정한 시학 황진우는 그 학교 교장으로부터 그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었다. 시학이 교사 고광선을 평정할 때, 교장은 그가 "까불거릴 뿐만 아니라 아첨기가 다분한 사람"이라고 귀띔해주었다.[11] 황해도 재령군 남률중학교 교사 이대순을 평정한 시학 이의혁은 그의 가정이 몹시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촌락 세포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하였다.[12] 평정자가 자서전 작성자의 지인들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했음을 볼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풍문도 평정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황해도 재령군 신원중학교 교장 노의백(29세)을 평가한 시학은 그가 "여자관계로 실수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여자를 바치는 경향이 있다"고 기록한 뒤 "들은 말"이라고 덧붙였다.[13] 기록자들의 은밀한 과거를 캐고자 했던 당국자들은 그들과 그

들 가족 성원들의 이력서·자서전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강원도 철원고급중학교 교사 김강동(20세)의 자서전 내용에 의구심을 품은 시학은 이웃한 철원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그의 형의 자서전·이력서를 조회하였다. 결국 그가 기만적 글쓰기를 시도했음이 시학의 문건 대조 작업을 통해 밝혀졌다.[14]

자서전·이력서의 기록, 기록자들의 평소 행실, 기록자 지인들과의 면담 등을 종합하여 평정서를 작성한 당국자들의 목표는 그들 개개인들의 내면세계와 인간관계를 철저히 해부하는 데 있었다. 황해도 재령군 남률중학교 교무주임 김창배(25세)를 평정한 시학 이의혁은 심지어 그의 아내가 "생활에 계획성이 없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산만하다"는 내밀한 가정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15]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큰 과오를 범한 이들은 아주 철저히 해부되었다.

국가는 개개인의 인성·개성·사상성 등 내면적 성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평정서를 통해 해부함으로써 모든 인민들을 철저히 장악·관리하고자 했다. 요컨대 자서전·이력서·평정서는 북한 대중들과 당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공간이자, 양자가 "글쓰기"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대립한 치열한 격전장의 성격을 띠었다.

맺음말

개개인의 계급적 소속과 가정환경과 과거 경력이 중시된 사회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에 대한 핵심 정보들이 압축돼 있는 자서전·이력서가 자신들의 사회적 성취를 좌우할 수 있는 문건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록자들은 전략적 글쓰기를 통해 그들의 은밀한 의도와 욕구를 관철하고자 했다. 가능한 좋은 직책에 등용되고 되도록 당국의 눈 밖에 나길 원치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유리한 경력을 과시한 반면,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은폐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기록자들의 글쓰기 전략은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유형의 기록자들 중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글쓰기 전략을 시도한 부류는 불리한 배경과 부정한 전력을 지닌 이들이었다. 자신의 배경과 전력을 감추고자 했던 그들은 대략 세 가지 형태의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변명성 글쓰기, 허위 기재, 의도적 누락이 그것이었다. 기만행위의 발각을 우려한 이들이나 당과 국가 앞에 보다 떳떳하고자 했던 이들은 부정한 전력과 불리한 배경에 대해 변명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더 과감하게 허위 기재나 고의 누락 전략을 구사한 이들은 출신성분이나 부정한 전력을 속여, 사회적 지위 상승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옥죌 수 있는 각종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당국은 자서전 작성자들의 기만 전략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당국자들이 개개인을 평가한 문건

인 평정서는 이력서·자서전의 기록 내용, 기록자의 평소 품행, 그의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자서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씌어진 평정서의 목표는 자서전에 기록된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데 있었다. 사실 전략적 글쓰기를 통한 기록자들의 기만행위가 성공하기 힘들었던 까닭은 그들에 대한 치밀한 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평정서를 통해 개개인들을 해부한 의도는 그들을 철저히 장악하고자 함에 있었다.

NOTE

1) 朴順熙, 1948.11.23, 「조선인민군 제3사단 제9연대 체육교원 5급 박순희 자서전」, NARA RG242 SA2009 Box10 Item21.2
2) 박연순, 1949.10.20, 「강원도 철원고급중학교 교사 박연순 자서전」,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3) 鄭泰卨, 1949.9.23, 「함경남도 갑산중학교 교양주임 정태설 자서전」
4) 최성배, 1949.11.1, 「강원도 평강여자중학교 교양주임 최성배 이력서」,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5) 길성혁, 1949, 「평양교원대학 화학과 학생 길성혁 이력서」, NARA RG242 SA2007 Box Item20.7
6) 장원겸, 1949, 「평양교원대학 지리과 학생 장원겸 평정서」, NARA RG242 SA2007 Box Item20.6
7) 임창빈, 1949, 「강원도 철원농업학교 교양주임 金永植 평정서」,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8) 송춘모, 1949, 「강원도 평강축산전문학교 교원 송춘모 자서전」,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9) 이복록, 1949, 「강원도 평강축산전문학교 교원 송춘모 평정서」,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10) 길성혁, 1949.5.8, 「평양교원대학 화학과 학생 길성혁 평정서」, NARA RG242 SA2007 Box Item20.7
11) 황진우, 1949.9.8, 「황해도 해주여자고급중학교 교사 고광선 평정서」, NARA RG242 SA2007 Box Item20.4
12) 이의혁, 1949, 「황해도 재령군 남률중학교 교사 이대순 평정서」
13) 이의혁, 1949, 「황해도 재령군 신원중학교 교장 盧義柏 평정서」
14) 임창빈, 1949, 「강원도 철원고급중학교 교사 김강동 평정서」, NARA RG242 SA2011 Box7 Item23
15) 이의혁, 1949, 「황해도 재령군 남률중학교 교사 김창배 평정서」